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TRADE FOCUS

2018년 49호

한·중 비교를 통한 對베트남 유망 수출품목과 시장진출 전략

2018년 12월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전략시장연구실

여택동 교수
박승혁 수석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CONTENTS

[요 약]	i
I. 베트남 경제 현황	01
II.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관계	08
III. 한 중 간 對베트남 교역과 경쟁력 비교	15
IV. 한국의 對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22
V. 결론 및 시사점	28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여택동 교수
전략시장연구실 박승혁 수석연구원

(053-810-2763, tdyeo@yu.ac.kr)

(02-6000-5178, shpark0929@kita.net)

2018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수준(6.8%)을 유지하거나 약간 웃도는 6.9%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는 6.6~6.8%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 베트남의 경제 환경은 제조업, 건설업 등의 호조, 수출 증가세 지속, FDI 유입 증가 등의 긍정요인과 공공부채 누적, 전 세계적 보호 무역주의 확산, 선진국의 긴축 기조 등 대내·외 악재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베트남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및 리스크 관리 능력에 힘입어 올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 FDI 유입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대외교역은 2007년 WTO 가입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2017년 기준 수출입 모두 2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수지는 21.1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주요 교역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입 상위 5개국은 5년 전(2013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 섬유 및 의류, 컴퓨터 및 부품, 신발 등 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컴퓨터 및 부품, 기계 및 공구, 휴대폰 및 부품, 섬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트남과의 교역은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17년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46.3% 증가한 477억 5,384만 달러, 수입은 29.5% 증가한 161억 7,699만 달러를 각각 기록해 315억 7,685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이었고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간 對베트남 교역을 비교해보면, 베트남 전체 수입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2013년: 15.7%, 2016년 : 18.4%, 2017년 : 22.1%)해온 반면, 베트남의 1위 수입대상국인 중국의 비중은 2015년 29.8%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28.6%, 2017년 27.6%로 하락세를 보였다. 또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주요 수출 품목에서 양국 간 경쟁이 발생해 2017년 기준 베트남의 對한, 對중 10대 수입 품목 중 6개 품목(컴퓨터 및 부품, 기계공구, 휴대폰 및 부품, 섬유, 플라스틱제품, 철 및 철강제품)이 동일했다. 또 UN Comtrade에

따르면 2016년 HS 4단위 기준 베트남의 對한 및 對중 10대 수입 품목은 4대 품목(전자집적회로, 전화기 및 통신기기, 기타 편물, 철·비합금강 평면압연제품)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중 간 수출경쟁은 수출경합도(ESI)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중 간 총 수출경합도(ESI)는 2014년 0.293에서 2017년 0.311로 상승해 베트남 시장에서의 양국 경쟁이 심화됐다. 특히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 중 중국과의 수출경합이 치열한 품목(ESI 0.5 이상)은 전기·전자기기, 액정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등 8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중 간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對세계 비교우위($RCA > 1$)가 있는 상품 중 對베트남 수출증가율이 비교적 높고, 베트남의 對한 수입 비중이 충분히 높은 품목을 분석, 총 11개 품목을 유망 수출품목으로 선정했다.

① 전자집적회로, ②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③ 액정디바이스, ④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 부분품, ⑤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 ⑥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스, ⑦ 기타(고유 기능의) 기계류, ⑧ 인쇄회로, ⑨ 철·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⑩ 광섬유·렌즈, ⑪ 측정 및 검사용기기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과 우호적인 투자 환경, 그리고 베트남-EU FTA, TPP 11(2018년 12월 30일 발효, CPTPP로부터 개칭) 등과 같은 FTA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Greenfield형 투자 진출뿐만 아니라, M&A를 통한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 물류·유통 등 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업 중시 입찰과 수의계약 등의 약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기초 부품·소재산업에 투자 진출하고, 핵심 육성 산업에는 한국산 자본재나 중간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기대수명 상승, 높은 출산율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병원 설립, 의료기기, 치과용 재료 등의 수출도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젊은 세대 중심의 인구 구조를 감안,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주력하는 동시에 offline 도·소매유통망 진출과 더불어 online 유통망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문

I. 베트남 경제 현황

1.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황

■ 2018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6.8%~6.9%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당초 IMF는 6.3%, ADB는 6.5%로 전망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지난 10년 만에 가장 높은 6.81%를 기록
- 2018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베트남 정부가 6.7%, IMF가 6.3%, WB(세계은행)이 6.5%로 전망했으나, 올해 9월말까지 경제성장률이 6.98%를 기록해 당초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응우옌 쑤언 폭(Nguyen Xuan Phuc) 총리는 제14기 국회 제6차 회의 개막 연설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금년도 수준인 6.6~6.8%,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연 4%, 수출 증가율은 7~8%로 전망¹⁾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질경제성장률	5.98	6.68	6.21	6.81	6.8~6.9	6.6~6.8

주 : 2018~9년은 전망치

자료 : KOTRA(2017), 「2018 국별 진출전략-베트남」과 연합뉴스 2018년 10월 22일.

■ 2018년 베트남 경제 환경에는 긍정 요인과 대내외 악재 요인이 혼재,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이 성장기조 유지의 관건

- 금년도 베트남 경제를 견인하는 경기 상승 요인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이외에도 농업생산 회복, 제조업, 건설업 등의 호조, 수출 증가세 지속,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 소비시장 활성화 등이 있음
- 2017년 베트남의 수출은 2,151억 달러, 수입은 2,13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2018년 9월까지 수출은 2,380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2% 증가, 무역수지 54억 달러 흑자

1) VIETNAM NEWS, http://www.vinahanin.com/vn_news/361385.

- FDI는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사상 최고치 달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 중국 등의 對베트남 생산기지화 투자, 즉 수출기반형 투자 (export-platform FDI) 증가세가 지속 전망
- 반면 법정 상한선(GDP대비 65%)에 근접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²⁾로 인한 인프라 건설 한계, 부채채권 처리 부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선진국의 긴축 기조,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 등 비우호적인 요인도 잠재

2. 베트남의 산업 구조와 시장 특성

- 2017년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GDP 구성에 따르면 서비스업 41.32%, 광공업 및 건설업 33.34%, 농림수산업 15.34% 순이고, 노동력(직업) 구성에 의하면 농림수산업 40.3%, 서비스업 34.0%, 광공업 및 건설업 25.7% 순³⁾
- 제조·가공업의 GDP 비중은 2013년 13.3%에서 2017년 15.3%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⁴⁾
- 베트남은 중국과 동남아,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입지해 있고, 향후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동시에 젊은 인구층, 저임금 노동을 가진 동남아의 신흥 내수시장
- 2018년 7월 기준 인구 약 9,704만명(세계 15위), 평균연령(median 연령) 30.9세의 젊은 인구로 구성⁵⁾

2) 세계은행(World Bank)은 베트남의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법적 상한선에 근접한 64.7%까지 높아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고, IMF(국제통화기금)는 현재와 같이 연 5% 재정적자를 지속한다면 2020년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7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향후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음. 베트남 중앙은행과 국영기업의 부채까지 더한다면, 이미 베트남의 실질적인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0%에 육박한 실정임. 향후 베트남이 ODA 수혜국에서 제외가 예상되므로 공공부채 관리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2017년부터 공기업 민영화 및 지분 매각, 부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증 중단, 매각 및 폐기, 개인/기업 소득세,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토지사용권 양도세, 증권거래세 정비 등 추가 세원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 KNL Accounting & Law, 베트남 투자뉴스(2018년 11월 25일) 참고.

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m.html>.

4) 한국수출입은행(2017), 「중점협력 6개국 유망 진출산업 분석」과 한국무역협회(2018), 「2020년 2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베트남」, IIT Trade Focus 2018년 12호 참고.

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m.html>.

- 기대수명 상승과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2023년 인구 1억 명 돌파 전망
- 유소년 인구(1~14년) 비중이 23.27%로 고령인구(65세 이상, 6.35%) 비중을 크게 상회하며, 생산가능인구(15~65세) 비중은 2017년 기준 70.38%에 달함⁶⁾
-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15~34세의 젊은 인구층이 내수시장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IT, 가전제품, 의류패션, 유아용품 및 화장품 등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보다 저렴한 임금수준, 비교적 낮은 문맹률(5.5%), 지리적 이점 등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제2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2018년 6.1~7.0%, 평균 6.5% 인상⁷⁾)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점차 하락 전망
- 참고로 베트남 임금위원회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역별로 5.0~5.8%, 평균 5.3% 인상하기로 노사 간에 동의⁸⁾
- 1인당 소득수준 증가와 빠른 도시화 진전으로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화·고급화 양상
- 베트남의 1인당 소득수준은 2016년 전년 대비 10.2% 증가했고, 도시인구 비중은 2018년 기준 35.9%이고 연평균 도시화율이 2.98% 증가⁹⁾
- 20~30대 젊은 소비층이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중산층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다양한 수입품과 고급 상품의 구매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

6)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n.html>.

7) KOTRA(2017), 하노이 무역관 보고서와 KOTRA(2017), 「2018 국별 진출전략-베트남」 참고.

8) 베트남 정부가 임금위원회의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전례를 봤을 때 2019년 인상안을 원안대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은 5개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최저 임금제도를 실시.

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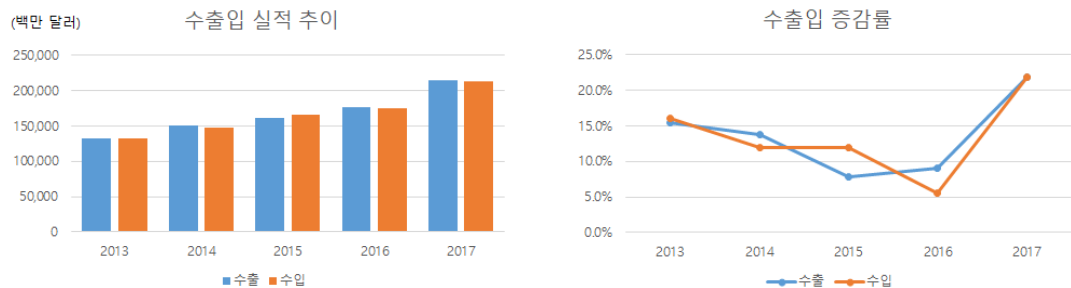
- 최근 현지에서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높은 접근성을 겸비한 미니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성장 중
-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이후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 양자 및 다자간 지역무역협정과 거대 경제권과의 Mega FTA 체결
 -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 ASEAN이 저임금 생산기지이자 6억 4천만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 원료공급지로 변모
 -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ASEAN의 비중이 확대되고 특히 베트남의 입지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 칠레와 FTA, 일본과 EPA(경제동반자협정) 뿐만 아니라 ASEAN,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를 발효
 - 또한 2018년 유럽연합(EU)과의 FTA, TPP 11(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로부터 개칭하여 2018년 12월 30일 발효)에 서명하였고, 현재 RCEP (지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도 참여 중
- 한국은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SEAN, EU, 중앙아시아, 북미 등의 국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베트남-EU FTA와 TPP 11의 원산지 누적 원칙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기업의 유럽 및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3. 베트남의 대외교역 현황

■ 베트남의 대외교역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2017년 기준 수출입 모두 2천억 달러를 넘어섬

- 2017년 대외수출은 전년 대비 21.8% 증가한 2,151억 1,900만 달러를 나타냈고, 수입은 전년대비 21.9% 증가한 2,130억 7백만 달러를 기록
- 무역수지는 2015년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다시 흑자규모가 확대되어 2017년에는 21.1억 달러의 흑자 기록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132,135 (15.4)	150,217 (13.8)	162,017 (7.9)	176,581 (9.0)	215,119 (21.8)
수입	132,033 (16.0)	147,849 (12.0)	165,570 (12.0)	174,804 (5.6)	213,007 (21.9)
수지	102	2,368	-3,553	1,777	2,112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베트남 세관(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주요 교역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입 실적 상위 5개국은 지난 2013년과 큰 변동 없음
 - 2017년 기준 베트남의 3대 수출대상국은 세계 시장규모 1~3위 국가인 미국 (416억 달러), 중국(355억 달러), 일본(168억 달러)
 - 2017년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이 586억 달러로 1위, 한국 470억 달러, 일본 170억 달러, 대만 127억 달러 순

- 2017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상위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이며 수출입 규모는 2013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2009년 아세안을 추월하여 1위로 올라섰고, 한국은 2014년 아세안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으며, 그 이후 중국과 한국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베트남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2013				2017			
	수출국	금액	수입국	금액	수출국	금액	수입국	금액
1	미국	23,841	중국	36,938	미국	41,592	중국	58,592
2	일본	13,631	한국	20,705	중국	35,404	한국	46,961
3	중국	13,233	일본	11,615	일본	16,859	일본	16,977
4	한국	6,618	대만	9,416	한국	14,819	대만	12,727
5	말레이시아	4,922	태국	6,318	홍콩	7,582	태국	10,643
6	독일	4,737	싱가포르	5,689	네덜란드	7,105	미국	9,349
7	UAE	4,138	미국	5,233	독일	6,363	말레이시아	5,949
8	홍콩	4,108	말레이시아	4,099	영국	5,422	싱가포르	5,316
9	영국	3,697	독일	2,965	UAE	5,029	인도	3,940
10	호주	3,509	인도	2,881	태국	4,808	인도네시아	3,660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베트남 세관(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섬유 및 의류, 컴퓨터 및 부품, 신발 등이 그 뒤를 이음

- 2013년 대비 2017년 수출 품목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휴대폰 및 부품의 수출비중은 2013년 16.1%에서 2017년 21.0%로 증가

■ 주요 수입 품목은 컴퓨터 및 부품, 기계 및 공구, 휴대폰 및 부품, 섬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7년의 수입 품목은 다소 순위 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수입품목인 컴퓨터 및 부품의 수입비중이 2013년 13.4%에서 2017년 17.7%로 증가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2013년			2017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휴대폰 · 부품	21,244	16.1	휴대폰 · 부품	45,271	21.0
2	섬유 · 의류	17,947	13.6	섬유 · 의류	26,120	12.2
3	컴퓨터 · 부품	10,601	8.0	컴퓨터 · 부품	25,978	12.1
4	신발	8,410	6.4	신발	14,678	6.8
5	원유	7,278	5.5	기계 · 공구	12,913	6.0
6	수산물	6,717	5.1	수산물	8,309	3.9
7	기계 · 공구	6,014	4.6	목재 · 목제품	7,702	3.6
8	목재 · 목제품	5,562	4.2	자동차 · 부품	7,107	3.3
9	자동차 · 부품	4,967	3.8	사진 · 비디오카메라	3,801	1.8
10	쌀	2,925	2.2	직물용실	3,593	1.7

자료 : 베트남 세관(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2013년			2017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기계 · 공구	18,685	14.2	컴퓨터 · 부품	37,774	17.7
2	컴퓨터 · 부품	17,713	13.4	기계 · 공구	33,882	15.9
3	섬유	8,340	6.3	휴대폰 · 부품	16,435	7.7
4	휴대폰 · 부품	8,048	6.1	섬유	11,381	5.3
5	석유제품	6,972	5.3	철 · 철강	9,077	4.3
6	철 · 철강	6,657	5.0	플라스틱	7,582	3.6
7	플라스틱	5,714	4.3	석유제품	7,065	3.3
8	직물 · 가죽 등	3,779	2.9	기타금속	5,860	2.8
9	동물사료	3,077	2.3	플라스틱 제품	5,465	2.6
10	화학물	3,032	2.3	직물 · 가죽 등	5,42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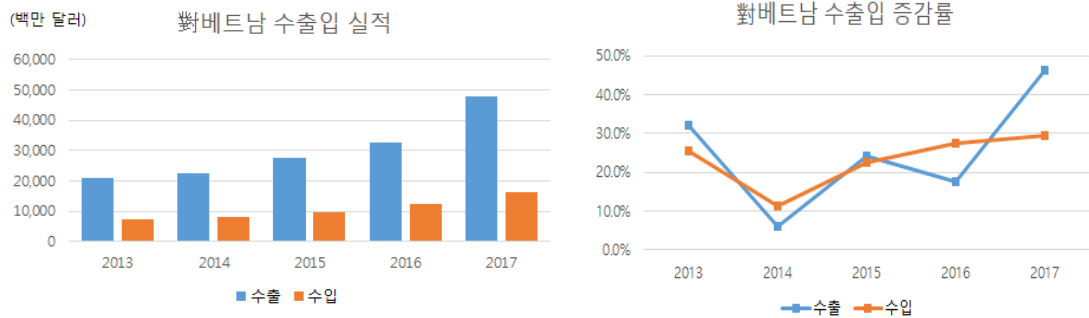
자료 : 베트남 세관(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Ⅱ.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관계

1. 한-베트남 교역 현황

- 한국의 베트남과의 교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17년 기준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41.7% 증가한 639억 3,083만 달러를 기록
- 2017년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46.3% 증가한 477억 5,384만 달러, 수입은 29.5% 증가한 161억 7,699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315억 7,685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 실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21,088 (32.2)	22,352 (6.0)	27,771 (24.2)	32,630 (17.5)	47,754 (46.3)
수입	7,175 (25.5)	7,990 (11.4)	9,805 (22.7)	12,495 (27.4)	16,177 (29.5)
교역	28,263	30,342	37,576	45,125	63,931
무역수지	13,912	12,361	17,966	20,135	31,577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베트남은 2014년 한국의 제6위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15~16년에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추월하여 제4위 수출대상국, 2017년에는 홍콩을 앞지르고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 도약

<한국의 10대 수출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중국	145,288	중국	137,124	중국	124,433	중국	142,120
2	미국	70,285	미국	69,832	미국	66,462	미국	68,610
3	일본	32,184	홍콩	30,418	홍콩	32,782	베트남	47,754
4	홍콩	27,256	베트남	27,771	베트남	32,630	홍콩	39,112
5	싱가포르	23,750	일본	25,577	일본	24,355	일본	26,816
6	베트남	22,352	싱가포르	15,011	싱가포르	12,459	호주	19,862
7	대만	15,077	인도	12,030	대만	12,220	인도	15,056
8	인도	12,782	대만	12,004	인도	11,596	대만	14,898
9	인도네시아	11,361	멕시코	10,892	멕시코	9,721	싱가포르	11,652
10	멕시코	10,846	호주	10,831	마셜제도	7,728	멕시코	10,93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수입 측면에서 베트남은 2014년 한국의 제15위 수입대상국이었으나, 2015년에는 10대 수입국으로 진입, 2016~17년에는 러시아와 카타르를 앞지르고 제8위 수입대상국으로 올라섬

<한국의 10대 수입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중국	90,082	중국	90,250	중국	86,980	중국	97,860
2	일본	53,768	일본	45,854	일본	47,467	일본	55,125
3	미국	45,283	미국	44,024	미국	43,216	미국	50,749
4	사우디	36,695	독일	20,957	독일	18,917	독일	19,749
5	카타르	25,723	사우디	19,561	대만	16,403	사우디	19,590
6	독일	21,299	대만	16,654	사우디	15,742	호주	19,160
7	호주	20,413	카타르	16,475	호주	15,176	대만	18,073
8	쿠웨이트	16,892	호주	16,438	베트남	12,495	베트남	16,177
9	UAE	16,194	러시아	11,308	카타르	10,081	러시아	12,040
10	대만	15,690	베트남	9,805	러시아	8,641	카타르	11,2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2.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입 품목

■ 2017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기타기계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플라스틱제품, 편직물의 순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을 포함한 4개 전기 전자 제품(MTI 8)과 합성수지, 석유제품, 편직물 등 총 7개 품목은 2013년에도 10대 수출품목으로 포함
- 2013~17년 간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수출비중이 급증, 전체 수출 중 양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2013년 21.8%에서 2017년 34.7%로 상승

<對베트남 10대 수출품목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2013년			2017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반도체	2,901	13.8	반도체	9,234	19.3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691	8.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	15.4
3	무선통신기기	1,566	7.4	무선통신기기	3,286	6.9
4	합성수지	1,136	5.4	기구부품	2,612	5.5
5	철강판	963	4.6	석유제품	1,987	4.2
6	편직물	942	4.5	합성수지	1,442	3.0
7	기구부품	906	4.3	기타기계류	1,427	3.0
8	석유제품	787	3.7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1,299	2.7
9	자동차	437	2.1	플라스틱 제품	1,152	2.4
10	인조장섬유직물	402	1.9	편직물	1,118	2.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 2017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목재류, 기구부품, 영상기기 등의 순

- 2013~17년 간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중 의류와 신변잡화 수입비중은 감소한 반면, 무선통신기기의 수입비중이 2013년 2.6%에서 2017년 24.5%로 급증
- 원유와 가구, 기타섬유제품, 연체동물, 천연섬유사 등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품목은 2017년 10대 주요 수입품목에서 사라지고, 컴퓨터, 기구부품, 영상기기, 반도체, 산업용전자기기 등 전기전자 제품이 포함

<對베트남 10대 수입품목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2013년			2017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의류	1,694	23.6	무선통신기기	3,964	24.5
2	원유	943	13.1	의류	2,875	17.8
3	신변잡화	383	5.3	신변잡화	797	4.9
4	목재류	232	3.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	3.7
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26	3.1	컴퓨터	560	3.5
6	무선통신기기	188	2.6	목재류	511	3.2
7	가구	163	2.3	기구부품	496	3.1
8	기타섬유제품	146	2.0	영상기기	400	2.5
9	연체동물	132	1.8	반도체	374	2.3
10	천연섬유사	129	1.8	산업용 전기기기	317	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 특히 2017년 한국 중소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약 119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32.3% 증가해 중국(7.6%), 미국(8.9%), EU(10.5%) 등 기타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았음¹⁰⁾

- 2017년 한국 중소기업의 對동남아 수출(289억 달러)은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1,008억 달러)의 28.6%를 차지, 중국(21.7%), 미국(11.1%)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특히 중소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은 11.8%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對미국 수출 비중보다 높아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¹¹⁾

- 중소기업의 對베트남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전체 기업의 對베트남 상위 5대 수출품목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기업의 5대 수출품목: 반도체, 전기기기, 일반기계, 기타 IT 부품, 무선 통신기기

- 중소기업의 5대 수출품목: 일반기계(18.6%), 섬유·직물(11.9%), 정밀기계(10.7%), 플라스틱제품(6.9%), 기타 IT 부품(5.5%) 순

10) 관세청·통계청(2018),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본 2017년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

11) 중소기업들의 對동남아 수출 비중 28.6%는 전체 기업의 對동남아 수출 비중(26.0%)보다도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 비중 21.7%는 전체 기업의 對중국 수출 비중(24.8%)보다 낮았음. 한편 중소기업들의 對베트남 수출 비중은 전체 기업의 對베트남 수출 비중(8.3%)보다도 높은 11.8%임.

3.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현황

■ 한국의 對베트남 누적 투자금액(1980년 이후)은 2018년 6월 기준 193억 1,796만 달러이며, 신고 건수는 17,631건, 법인 수는 5,846개로 집계

- 2018년 6월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제2, 3위 투자국인 일본, 싱가포르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 중인 반면,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은 제4위 투자대상국이자 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
-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더욱 급증,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직후인 2016년 對베트남 투자금액은 23억 6,978만 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

<연도별 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합계	17,631	5,846	29,816,934	19,317,956
2005	445	205	406,778	345,767
2006	636	302	1,816,742	601,320
2007	945	454	2,807,828	1,315,708
2008	897	312	1,933,951	1,395,533
2009	705	173	972,833	628,215
2010	849	234	2,227,045	882,093
2011	794	197	1,523,084	1,055,904
2012	819	214	1,003,990	979,520
2013	1,110	333	1,474,850	1,157,505
2014	1,369	459	2,150,461	1,619,316
2015	1,706	547	2,917,181	1,608,385
2016	2,200	671	3,065,727	2,369,778
2017	2,362	709	2,363,548	1,954,602
2018	1,310	395	2,200,463	1,970,807

주 : 2018년 실적은 6월말 기준, 1980년 실적은 1968~1980년까지의 누계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제조업이 118억 4,584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61.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50억 6,888만 달러로 26.2%를 차지

- 제조업 투자실적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26억 7,632만 달러로 제조업 투자의 22.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등의 순

- 서비스업 투자실적은 부동산업이 14억 1,125만 달러로 서비스 투자의 27.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

<업종별 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합계	17,631	5,846	29,816,934	19,317,956
농업, 임업 및 어업	107	33	53,928	28,328
광업	55	15	4,982,719	2,374,916
제조업	12,054	3,582	15,143,690	11,845,836
섬유제품(의복 제외)	1,081	338	1,542,467	1,098,095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732	499	1,735,963	1,340,338
가죽, 가방 및 신발	783	162	844,153	695,24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679	222	725,201	573,6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831	243	917,070	714,636
비금속 광물제품	225	58	413,408	318,937
1차 금속	424	105	1,197,731	1,063,709
금속가공제품	609	203	607,456	449,38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240	630	3,150,081	2,676,319
전기장비	575	153	1,218,867	957,659
기타 기계 및 장비	766	286	557,152	355,9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15	110	488,856	352,030
기타 제품	571	195	327,855	255,166
서비스업	5,415	2,216	9,636,597	5,068,876
건설업	1,141	476	1,239,909	549,566
도매 및 소매업	1,531	625	1,055,002	875,382
운수 및 창고업	271	110	95,337	78,323
숙박 및 음식점업	265	113	1,273,431	492,878
정보통신업	330	148	184,066	133,189
금융 및 보험업	136	55	1,827,188	1,070,126
부동산업	401	163	3,229,422	1,411,2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9	205	108,892	62,34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27	167	97,284	67,519

주 : 2018년 6월말 누계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對베트남 직접투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63.5%(122억 6,139만 달러), 중소기업이 32.1%(62억 388만 달러), 개인이 3.3%로 나타남

<투자자규모별 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개, 천 달러)

구 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합 계	17,631	5,846	29,816,934	19,317,956
대 기 업	3,306	721	17,196,787	12,261,387
중 소 기 업	10,992	3,534	11,339,840	6,203,882
개 인 기 업	648	284	293,223	177,928
개 인	2,653	1,297	931,384	642,198
기 타(비 영 리 단 체 등)	32	10	55,701	32,561

주 : 2018년 6월말 기준 누계 실적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2018년 상반기 누계기준 한국 기업의 최대 진출 지역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및 협력사가 주로 투자한 북부지역으로 전체 투자의 약 57% 차지하는 반면, 남부지역은 약 36%, 중부지역은 약 7%를 차지

- 한국 기업의 최대 진출 지역은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의 12.5% 차지하는데, 그 다음으로 동나이(10.8%), 하이퐁(10.6%), 하노이(10.5%), 타이응우웬(10%), 호치민(8.5%) 등의 순¹²⁾

■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투자청의 FDI 통계에 따르면, 1988~2017년 상반기 누계 기준(신규, 증액),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6,130개 프로젝트에 약 545억 590만 달러 투자

- 1988~2017년 상반기 누계(신규 및 증액)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제조업 3,545건(399억 380만 달러), 부동산업 116건(69억 3,730만 달러), 건설업 754건(28억 2,450만 달러), 물류·운수업 126건(9억 5,580만 달러) 등의 순
- 투자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73.2%, 부동산업 12.7%, 건설업 5.2%, 물류·운수업 1.8% 등의 순

12) KOTRA(2017), 「2018 국별 진출전략-베트남」, p. 58.

Ⅲ. 한·중 간 베트남 교역과 경쟁력 비교

1. 한국과 중국의 베트남 교역

■ 2017년 기준 베트남의 對한, 對중 주요 수출·입 품목에서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베트남의 對한, 對중 10대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이 동일
 - 휴대폰·부품, 컴퓨터·부품, 기계·공구, 섬유·의류, 직물용실, 신발, 수산물
- 베트남의 對한, 對중 10대 수입 품목 중 6개 품목이 동일
 - 컴퓨터·부품, 기계·공구, 휴대폰·부품, 섬유, 플라스틱 제품, 철·철강제품

<베트남의 對한·對중 수출품목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2013년	對한 수출			對중 수출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섬유·의류	1,639	24.8	컴퓨터·부품	2,090	15.8
2	원유	725	11.0	고무	1,129	8.5
3	자동차·부품	512	7.7	목재·목제품	1,051	7.9
4	수산물	510	7.7	쌀	942	7.1
5	목재·목제품	329	5.0	직물용실	900	6.8
6	컴퓨터·부품	325	4.9	원유	900	6.8
7	신발	231	3.5	석탄	668	5.0
8	기계·공구	228	3.4	휴대폰·부품	582	4.4
9	직물용실	224	3.4	수산물	507	3.8
10	휴대폰·부품	218	3.3	기계·공구	419	3.2



2017년	對한 수출			對중 수출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휴대폰·부품	3,971	26.8	휴대폰·부품	7,152	20.2
2	섬유·의류	2,642	17.8	컴퓨터·부품	6,861	19.4
3	컴퓨터·부품	1,829	12.3	과일·채소	2,649	7.5
4	기계·공구	967	6.5	사진·비디오카메라	2,088	5.9
5	수산물	778	5.2	직물용실	2,042	5.8
6	목재·목제품	665	4.5	기계·공구	1,574	4.4
7	신발	403	2.7	고무	1,444	4.1
8	직물용실	319	2.2	신발	1,141	3.2
9	자동차·부품	256	1.7	섬유·의류	1,103	3.1
10	기타금속·제품	173	1.2	수산물	1,085	3.1

자료 : 베트남 세관(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과거 베트남의 對한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의류, 원유, 자동차 부품 등이었으나 2017년에는 휴대폰·부품 등으로, 기계·공구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
- 2013년 베트남의 對한 10대 수출 품목 중 휴대폰·부품, 기계·공구, 컴퓨터·부품 등이 하위 순위였으나, 2017년에는 이들 품목이 각각 제1, 3, 4위로 상위 순위에 올랐고 동시에 수출비중도 크게 증가
- 반면 섬유·의류, 원유, 자동차부품은 2013년 베트남의 對한 10대 수출 품목 중 상위권이었으나, 2017년에는 이들 품목의 수출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순위도 하락

<베트남의 對한·對중 수입품목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2013년	對한 수입			對중 수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컴퓨터·부품	5,099	24.6	기계·공구	6,561	17.8
2	기계·공구	2,825	13.6	휴대폰·부품	5,698	15.4
3	휴대폰·부품	2,201	10.6	컴퓨터·부품	4,501	12.2
4	섬유	1,698	8.2	섬유	3,870	10.5
5	플라스틱	1,174	5.7	철·철강	2,393	6.5
6	철·철강	1,130	5.5	석유제품	1,268	3.4
7	직물·가죽 등	726	3.5	직물·가죽 등	1,210	3.3
8	철·철강제품	713	3.4	비료	851	2.3
9	석유제품	649	3.1	철·철강제품	840	2.3
10	기타금속	624	3.0	화학물	834	2.3

↓

2017년	對한 수입			對중 수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컴퓨터·부품	15,335	32.7	기계·공구	10,909	18.6
2	기계·공구	8,687	18.5	휴대폰·부품	8,749	14.9
3	휴대폰·부품	6,176	13.2	컴퓨터·부품	7,077	12.1
4	섬유	2,046	4.4	섬유	6,078	10.4
5	석유제품	1,939	4.1	철·철강	4,104	7.0
6	플라스틱제품	1,625	3.5	직물·가죽 등	2,047	3.5
7	플라스틱	1,462	3.1	플라스틱제품	1,925	3.3
8	기타금속	1,448	3.1	철·철강제품	1,269	2.2
9	철·철강	1,218	2.6	화학물	1,269	2.2
10	자동차부품	813	1.7	화학제품	1,216	2.1

자료 : 베트남 세관(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베트남의 對한, 對중 10대 수입 품목은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

- 2017년 對한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부품, 기계·공구, 휴대폰·부품, 석유 제품 등으로 지난 2013년과 큰 변화는 없었고 상위 3개 품목의 비중은 늘어남
- 對중 10대 수입 품목도 기계·공구, 휴대폰·부품, 컴퓨터·부품 등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옴

■ UN Comtrade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對한, 對중 10대 수출입 품목(HS 4단위)은 대체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으나 주요 수입품목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공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전자 집적회로, 전화기 및 통신기기, 기타편물 등으로 나타남

<2016 베트남의 對한·對중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 달러, %)

	對한 수출			對중 수출		
	HS code	품 목	금액	HS code	품 목	금액
1	8517	전화기 및 통신기기	2,862,074	8542	전자집적회로	2,046,193
2	8528	모니터	362,324	5205	면사	1,511,336
3	6201	남성용 코트, 재킷 등	336,367	9006	사진기	1,334,281
4	6203	남성용 수트, 바지 등	289,932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1,307,846
5	6202	여성용 코트, 재킷 등	282,481	0810	과일	1,142,828
6	8518	마이크로폰 및 스탠드	211,977	8518	마이크로폰 및 스탠드	1,051,952
7	4401	멜나무, 목재, 톱밥 등	207,865	8517	전화기 및 통신기기	903,163
8	0306	갑각류	192,176	1006	쌀	782,107
9	6204	여성용 수트, 바지 등	186,689	4002	합성고무판·시트 등	745,402
10	8534	인쇄회로기판	173,901	1108	전분·이눌린	649,961

<2016 베트남의 對한·對중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 달러, %)

	對한 수입			對중 수입		
	HS code	품 목	금액	HS code	품 목	금액
1	8542	전자집적회로	5,973,708	8517	전화기 및 통신기기	6,874,651
2	8517	전화기 및 통신기기	3,809,038	7225	기타 합금강평판압연제품	2,021,893
3	8534	인쇄회로기판	1,426,092	8542	전자집적회로	1,492,102
4	2710	석유와 역청유	1,112,930	6006	기타편물	1,110,893
5	6006	기타편물	556,415	7604	알루미늄 봉·프로파일	1,025,652
6	8479	기타기계류	543,367	8529	전자부품	983,115
7	3926	플라스틱제품	500,607	7210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43,285
8	8708	차량용부품	494,310	8536	전기회로부품	718,785
9	3919	접착성 테이프 등	447,166	8473	기타기계부품	673,452
10	7208	철·비합금강 판압연제품	446,019	8471	자동차료처리기계및부품	670,045

자료 : UN Comtrade

2. 한-중 간 對베트남 경쟁관계 비교

■ 베트남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 간 지속 증가해온 반면, 대중 수입 비중은 최근 하락세를 보임

- 對한 수입규모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5.7%, 2016년 18.4%, 2017년 22.1%를 각각 기록
- 베트남의 1위 수입 대상국인 중국의 비중은 2013년 27.9%에서 2015년 29.8%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28.6%, 2017년 27.6%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세를 나타냄
- 베트남의 3~4위 수입대상국인 일본과 대만의 비중도 감소 추세
 - 일본 : 2012년 8.8% → 2017년 7.9%, 대만 2012년 7.1% → 2017년 6.0%

■ 對베트남 수출에서 한·중 간 경쟁관계를 수출경합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로 보면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중 간 수출경합도 지수(HS 4단위 기준)는 2014년 0.293에서 2017년 0.311로 다소 상승¹³⁾

〈 수출경합도 지수(ESI) 〉

한·중 간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수출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수출경합도(ESI: $0 < \text{ESI} < 1$)가 1에 가까울수록 베트남 시장에서의 양국 간 경쟁 정도가 커짐

$$ESI_{CK} = \sum_i \min \left(\frac{X_{Ci}}{X_C}, \frac{X_{Ki}}{X_K} \right)$$

$X_j, j = C, K$: 중국(C)과 한국(K)의 對베트남 총 수출액

$X_{ji}, j = C, K$: 중국(C)과 한국(K)의 對베트남 i품목 수출액

■ 2017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 중 한·중 간 수출경합이 치열한 품목(ESI 0.5 이상)은 전자기기와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10개 품목

13)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8), 「베트남시장에서 한·중·일 간 경쟁 상황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 연구」.

전자기기와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광섬유·렌즈, 전화기 및 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접착성판·쉬트·테이프, 전자집적회로, 측정 및 검사용기기, 기타기계류,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디바이스

- 지난 2014년 대비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전화기 및 통신기기, 전자기기와 부분품, 전기회로의 개폐용·접속용기기, 광섬유·렌즈, 화장품 등임
- 반면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접착성판·쉬트·테이프, 전자 집적회로, 측정 및 검사용기기, 기타 기계류,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스, 석유와 역청유,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등으로 나타남

<한·중 간 수출경합도 지수 증감 추이>

HS code	품목	한·중 간 수출경합도 지수(ESI)		
		2014년	2017년	증감율
2710	석유와역청유(원유 제외)	0.832	0.156	-0.676
3304	화장품	0.369	0.444	0.075
3919	접착성판·쉬트·테이프	0.988	0.749	-0.239
3926	플라스틱제품	0.771	0.784	0.013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0.410	0.373	-0.037
6006	기타 편물	0.002	0.012	0.010
8479	기타기계류	0.719	0.538	-0.181
8517	전화기및통신기기	0.783	0.857	0.074
8529	전기·전자기기 부분품	0.748	0.993	0.245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접속용기기	0.305	0.457	0.153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디바이스	0.871	0.533	-0.338
8542	전자집적회로	0.858	0.705	-0.153
9001	광섬유·렌즈	0.743	0.903	0.160
9013	액정디바이스	0.975	0.952	-0.023
9031	측정및검사용기기	0.707	0.639	-0.068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8)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정

3.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

-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입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를 도출

〈 무역특화지수 지수(TSI) 〉

어떤 품목 i 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면, TSI 지수($-1 < TSI < 1$)가 정(+)의 값을 갖는 반면, 비교열위를 가지면, TSI가 부(-)의 값을 가짐

$$TSI_{Ki} = \frac{X_{Ki} - M_{Ki}}{X_{Ki} + M_{Ki}}$$

X_{Ki} : 특정 품목 i 에서 한국(K)의 對베트남 수출

M_{Ki} : 특정 품목 i 에서 한국(K)의 對베트남 수입

- 2017년 기준 對베트남 TSI지수가 0.5보다 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은 총 11개 품목

- 이중 9개 품목이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으로 한국 제품의 對베트남 경쟁력이 높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

전자집적회로,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 액정디바이스, 인쇄회로기판,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전기·전자기기 부분품, 기타 기계류,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 측정·검사용기기, 전기회로의 개폐용·접속용기기, 접착성판·시트·테이프,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디바이스 등

- 반면 對베트남 TSI지수가 -0.5보다 작아 한국이 비교열위를 보이는 품목은 12개 품목이며, 이중 6개 품목이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에 포함

석유와 역청유(원유), 남성용 및 소년용 방한용 외투, 텔레비전 모니터·프로젝터, 여성용 및 소년용 방한용 외투, 남성용 및 소년용 슈트 바지, 방직용섬유제 갑피의 신발, 가죽제 갑피의 신발,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딸나무, 갑각류, 연체동물, 여성용 및 소년용 슈트 바지 등

■ 한편 2013년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졌던 품목과 비교열위에 있던 품목들은 2017년에 다소 변화가 발생

- 전화기 및 통신기기(0.792 → -0.277), 텔레비전 모니터 · 프로젝터(0.829 → -0.947), 자동자료 처리기계(컴퓨터)(0.893 → -0.525)의 TSI지수가 2013년 대비 감소
-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의 경우 對베트남 TSI 지수가 0.169(2013년)에서 0.997(2017년)로 크게 상승,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게 됨
- 측정 · 검사용기기, 반도체 보울 · 웨이퍼 · 반도체 디바이스(반도체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2017년 TSI 지수도 2013년 대비 소폭 상승

<對베트남 수출입 상위 품목의 TSI 변화 추이>

	HS code	품목명	2013년	2017년
1	8542	전자집적회로	0.965	0.936
2	8548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	0.169	0.997
3	9013	액정디바이스	0.969	0.839
4	8517	전화기및통신기기	0.791	-0.277
5	8534	인쇄회로기판(PCB)	0.938	0.689
6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0.998	0.998
7	8529	전기 · 전자기기 부분품	0.051	0.588
8	8479	기타(고유 기능의) 기계류	0.935	0.971
9	8486	반도체 보울 · 웨이퍼 · 반도체디바이스	0.834	0.991
10	9031	측정 · 검사용기기	0.598	0.834
11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접속용기기	0.831	0.619
12	3919	접착성판 · 시트(sheet) · 테이프	0.986	0.917
13	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디바이스	0.641	0.740
14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1.000	-1.000
15	6201	남성용및소년용 방한용 외투	-0.998	-0.999
16	8528	텔레비전 모니터 · 프로젝터	0.829	-0.947
17	6202	여성용및소녀용 방한용 외투	-0.995	-0.997
18	6203	남성용및소년용 슈트 바지	-0.969	-0.998
19	6404	방직용섬유제 갑피의 신발	-0.996	-0.989
20	6403	가죽제 갑피의 신발	-0.998	-0.993
21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0.893	-0.525
22	4401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 등)	-1.000	-1.000
23	0306	갑각류	-0.964	-0.961
24	0307	연체동물	-0.779	-0.945
25	6204	여성용및소녀용 슈트 바지	-0.991	-0.98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8

IV. 한국의 對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1. 對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안정된 정치구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 폭넓은 FTA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투자(FDI)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 평균연령 30.5세의 젊은 연령층 ▶ 저렴한 제조업 노동자 평균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물류 및 유통 인프라 ▶ 소재·부품 등 기초 산업 발달 미비 ▶ 대외 경제변수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 ▶ 행정 및 무역·통관 체제 불투명·불명확 ▶ 지역 간 불균형한 경제·사회 개발 수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소득수준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 진전으로 내수시장이 빠르게 확대 ▶ 정부의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과 기초·기반 산업 육성 정책으로 중·단기 성장잠재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적자 누적으로 산업,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건설 여건 미비 ▶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비용 경쟁력 점차 하락 ▶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아직 낮고 가격 변화에 민감 ▶ 중국, 대만, 태국 등 경쟁국의 베트남 진출로 한국과의 경쟁관계가 심화

- 이를 기초로 베트남 시장 진출 세부전략으로는 우선 對베트남 투자진출 시 Greenfield형 투자뿐만 아니라 M&A를 통한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더불어 베트남-EU FTA, TPP 11(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 개칭) 등 FTA 네트워크 활용 가능

- 2019년 베트남-EU FTA 발효가 예상돼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기업들이 전기·전자기기, 의류·패션 잡화 등의 對EU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 베트남-EU FTA의 원산지 누적 조항에 따라 한국산 전자부품, 원단 및 의류 등 중간재의 베트남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M&A 방식의 투자를 통해 초기 투자비와 행정 부담을 절감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베트남 M&A 시장에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유통, 인프라, 금융 분야의 M&A가 급증하는 추세
- 또한 베트남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기초 부품·소재산업에 투자 진출하고, 핵심 육성산업에는 한국산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전략 필요
- 베트남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품·소재 조달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교통, 물류·유통 등 사회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현지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것을 제안
- 국내기업 중시 입찰과 수의계약 등의 약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필요
- 소비재 수출 관련,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와 젊은 세대 중심의 인구 구조를 감안, offline 도·소매유통 조직뿐만 아니라 online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함
- 패션, 식품 등 가성비 높은 소비재와 더불어 기대수명 상승, 높은 출산율 등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의료 시스템, 의료 기기, 치과용 재료 등의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

2. 對베트남 유망 수출품목

- 한국의 對베트남 상위 20위 수출품목 중 무역특화지수(TSI)가 0.5보다 커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전화기 및 통신기기를 제외한 19개 품목
- 이 중 對세계 수출 증가율 대비 對베트남 수출 증가율이 확연한 성과를 보이는 수출 유망품목은 11개 품목

전자집적회로,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 액정디바이스, 인쇄회로기판(PCB),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기타(고유 기능의) 기계류, 측정·검사용기기,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전기회로의 개폐용·접속용기기, 접착성 판·시트·테이프, 광섬유·렌즈 등

- 특정 품목 i 의 對베트남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품목은 11개 품목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 인쇄회로기판(PCB), 기타(고유 기능의) 기계류, 측정·검사용기기,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전기 회로의 개폐용·접속용기기, 접착성 판·시트·테이프, 기타 메리아스 및 뜨개질 편물,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화물자동차, 기타 의류부속품 및 부분품 등

<한국의 對베트남 유망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HS 코드	품 목 명	對베트남 수출					對세계 수출		
		순위	금 액	증감률	비중	TSI	순위	금 액	증감률
8542	전자집적회로	1	8,646,429	112.2	10.04	0.936	1	86,103,152	64.7
8548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	2	4,663,790	283,028	57.91	0.997	11	8,052,958	20,095
9013	액정디바이스	3	2,436,853	430.6	15.77	0.839	8	15,454,659	-4.2
8517	전화기및통신기기	4	2,172,493	-48.9	13.88	-0.277	7	15,649,311	-36.7
8534	인쇄회로기판(PCB)	5	2,098,528	63.8	37.99	0.689	19	5,523,611	26.0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6	1,974,127	81.7	5.89	0.998	3	33,544,128	31.4
8529	전기·전자기기 부분품	7	1,470,182	23.0	17.96	0.588	10	8,187,271	28.6
8479	기타(고유기능의) 기계류	8	1,451,041	134.8	23.98	0.971	16	6,051,685	25.8
8486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	9	1,398,602	769.0	20.35	0.991	13	6,871,099	64.0
9031	측정·검사용기기	10	887,327	153.9	29.16	0.834	30	3,042,618	48.4
8536	전기회로의개폐용·접속용기기	11	617,126	30.9	22.21	0.619	37	2,779,110	6.8
3919	접착성판·시트·테이프	12	583,158	94.9	33.14	0.917	51	1,759,536	16.7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디바이스	13	570,049	14.6	9.21	0.740	15	6,189,418	9.0
6006	기타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14	568,276	5.0	40.41	0.981	70	1,417,081	-3.8
9001	광섬유·렌즈	15	472,464	151.0	12.95	0.912	27	3,648,850	24.5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16	454,731	2.4	26.98	0.946	55	1,685,586	-4.6
7208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7	439,172	9.4	8.99	0.993	20	4,883,716	13.2
8704	화물자동차	18	394,369	21.7	22.78	0.998	53	1,731,569	8.8
3907	폴리에테르·폴리에스테르	19	393,298	7.3	8.19	0.968	22	4,803,620	15.0
6217	기타 의류부속품 및 부분품	20	384,472	11.0	67.38	0.990	135	570,592	7.4
	총 계		47,753,839	46.3	8.32	-		573,694,421	15.8

주 : 비중은 특정 품목의 對세계 수출 대비 對베트남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HS 4단위 기준)

- 한국이 對세계 비교우위가 있는(RCA > 1) 상품 중 베트남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수출증가율이 비교적 높고, 베트남의 對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유망 수출 품목으로 선정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특정 국가(k 국)의 특정 품목(품목 i)의 수출 비중이 전 세계의 특정 품목(품목 i)의 수출비중보다 높은 경우 ($RCA_{kw}^i > 1$), k 국은 품목 i 에 특화하여 비교우위가 있다고 봄.

$$RCA_{kw}^i = \frac{(X_{kw}^i / X_{ww}^i)}{(X_{kw} / X_{ww})}$$

여기서 X_{kw}^i = k 국의 품목 i 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ww}^i = 전세계의 품목 i 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kw} = k 국의 대세계 총수출액

X_{ww} = 전세계 총수출액

- 한국의 對세계 수출 상위 50대 품목 중 현시비교우위지수(RCA)가 1보다 커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44개로, 이 중 한국이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경쟁력($TSI > 0.5$)을 가지는 유망 수출품목 후보는 총 15개 품목

<2017년 한국의 수출 상위 50대 품목의 RCA지수>

순위	HS	품목	RCA지수
1	8542	전자직접회로	4.01
2	8703	승용차	1.49
3	2710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1.68
4	8901	선박류(여객선·화물선)	9.05
5	8708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1.44
6	8905	특수선박	15.65
7	8517	전화기및유무선 통신기기	0.92
8	9013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등	5.94
9	2902	환식탄화수소	6.88
10	8529	송수신기기 부분품	4.00
11	8548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	15.98
12	8473	계산사무용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1.78
13	8486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51
14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0.56
15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1.67
16	8479	기타(고용 기능의) 기계류	2.15
17	8507	축전지	3.64
18	7210	철·비합금강의 평판 열간압연제품	3.41
19	8534	인쇄회로	3.26
20	7208	철·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도금)	2.90
21	7308	철강 구조물과 부분품	2.94
22	3907	폴리에테르·폴리에스테르	2.66
23	3901	에틸렌의 중합체	2.06
24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3.22
25	3304	미용·메이크업용 화장품	2.27
26	3903	스티렌의 중합체	5.01
27	9001	광섬유·렌즈	3.48
28	4011	고무로 만든 타이어	1.38
29	8429	불도저·그레이더	2.21
30	9031	기타 측정용, 검사용기기	1.92
31	4002	합성고무	3.89
32	2901	비환식탄화수소	3.98
33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등	1.52
34	8544	절연전선·케이블	0.74
35	2917	폴리카르복시산	6.97
36	8538	전기회로개폐용기기 부분품	2.21
37	8536	전기회로의 개폐·보호용기기	0.79
38	8414	기체펌프·팬·후드	1.11
39	8409	엔진 부분품	1.13
40	8418	냉장고·냉동고 및 냉장기구	1.75
41	8431	중장비 부분품	1.25
42	7209	철·비합금강의 평판 냉간압연제품	3.94
43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0.71
44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2.03
45	7306	기타 철강으로 만든 관 등	2.45
46	8481	탭·코크·밸브	0.65
47	8480	금속주조용 주형물	2.78
48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1.64
49	3002	인혈·수혈·백신	0.33
50	8528	텔레비전모니터·프로젝터	0.59

- 상기 15개 후보 품목 중 對베트남 수출 증가율이 對세계 수출 증가율에 비해 비교적 높고, 동시에 특정 품목의 對세계 대비 對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충분히 높은 품목인 11개 유망 수출품목으로 선정

① 전자집적회로, ②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③ 액정디바이스, ④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 부분품, ⑤ 반도체 보울 · 웨이퍼 ·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⑥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디바이스, ⑦ 기타(고유 기능의) 기계류, ⑧ 인쇄회로, ⑨ 철 ·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⑩ 광섬유 · 렌즈, ⑪ 측정 및 검사용기기 등

V. 결론 및 시사점

■ 베트남 경제는 2019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3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6.98%를 기록했고 응우옌 쉘언 푸크(Nguyen Xuan Phuc) 총리는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6.6~6.8% 수준을 제시
- 국내외 우호요인과 악재요인 혼재 속에서 베트남 정부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

■ 이렇듯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중 간 수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베트남의 對한, 對중 10대 수입 품목 중 6개 품목이 동일했고, 對베트남 수출에서 한·중 간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도 상승해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수입품목은 컴퓨터·부품, 기계·공구, 휴대폰·부품, 섬유, 플라스틱 제품, 철·철강제품
 - 한·중 간 수출경합도 지수(HS 4단위 기준)는 2014년 0.293에서 2017년 0.311로 다소 상승

■ 한편 다양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對베트남 수출에서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등 총 11개 품목이 있음

- 한국의 對세계 수출 상위 50대 품목 중 현시비교우위지수(RCA)가 1보다 커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44개로, 이 중 한국이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경쟁력(TSI > 0.5)을 가지는 유망 수출품목 후보는 총 15개 품목

- 15개 후보 품목 중 베트남 수출 증가율이 세계 수출 증가율에 비해 비교적 높고, 동시에 특정 품목의 세계 대비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충분히 높은 품목인 11개 유망 수출품목으로 선정

① 전자집적회로, ②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③ 액정디바이스, ④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 부분품, ⑤ 반도체 보울 · 웨이퍼 ·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⑥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디바이스, ⑦ 기타(고유 기능의) 기계류, ⑧ 인쇄회로, ⑨ 철 ·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⑩ 광섬유 · 렌즈, ⑪ 측정 및 검사용기기 등

■ 향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Greenfield형 M&A 등 현지 기업과의 협력 진출과 더불어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더불어 베트남-EU FTA, TPP 11(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2018년 12월 30일 발효) 등 FTA 네트워크 활용 가능
- M&A 방식의 투자를 통해 초기 투자비와 행정 부담을 절감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베트남 M&A 시장에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증가, 특히 부동산, 유통, 인프라, 금융 분야의 M&A가 급증하는 추세
- 교통, 물류 · 유통 등 사회 인프라 건설시장 관련 공공조달 시장 진출 시 국내기업 중시 입찰과 수의계약 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

■ 또한 베트남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에 투자 진출하고, 관련 산업에 한국산 자본재나 중간재 수출 전략 필요

- 베트남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품 · 소재 조달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관련 우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와 젊은 세대 중심의 인구 구조를 감안, offline 소매유통 조직뿐만 아니라 online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패션, 식품 등 가성비 높은 소비재와 더불어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확대, 향후 의료 시스템, 의료기기, 치과용 재료 등의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문헌자료〉

- 관세청·통계청(2018),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본 2017년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
- 중소기업연구원(2018),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25년, 성과와 향후 과제」, 중소기업포커스 제18-02호, 2018년 3월 26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8a), 「베트남시장에서 한·중·일 간 경쟁 상황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 연구」, Trend Analysis 수출입이슈분석 2018년 8월.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8b), 「유망 수출품목 선정을 통한 대아세안 수출 전략」, Trend Analysis 수출입이슈분석 2018년 8월.
- 한국무역협회(2018a), 「신흥 빅4 시장 한·일 및 한·중 수출 경합도」, IIT Trade Focus 2018년 17호.
- 한국무역협회(2018b), 「2020년 2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베트남」, IIT Trade Focus 2018년 12호.
- 한국무역협회(2016), 「2017년 베트남 경제 전망 및 주요이슈 점검」, IIT Trade Focus 2016년 42호.
- 한국무역협회(2015),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일 및 한중 수출경합도 비교」, IIT Trade Brief No. 29, 2015년 5월 8일.
- 한국수출입은행(2017), 「중점협력 6개국 유망 진출산업 분석」, 2017년 8월.
- KOTRA(2017), 「2018 국별 진출전략-베트남」.
- KOTRA(2016), 「2017 베트남 진출전략」, 하노이 무역관 보고서.
- Kwak, S.Y. and Kim, M.J.(2018),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Vietnam”, 통상정보연구 20(3), 49~74.
- Yoon, Y.M. and Yeo, T.D.(2007), “Trade Structures and Relation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8(1), 121~145.

〈언론기사〉

뉴시스(2018), “韓 중소기업 수출, 동남아>중국... 베트남 32% 뛰어”, 2018년 10월 26일.

연합뉴스(2018), “베트남 경제 질주...올해 6.7% 돌파 이어 내년 최대 6.8% 성장”, 2018년 10월 22일.

이데일리(2018), “한국, 亞 신흥시장서 “日 반도체 · 中 디스플레이와 격돌”, 2018년 5월 11일.

한국무역신문(2018), “베트남,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 수출업체가 알아둬야 할 비관세장벽과 대응 방안”, 2018년 11월 14일.

VIETNAM NEWS(2018), “베트남 내년 성장률 목표 6.6~6.8 %, 물가 상승률은 4 %”, 2018년 10월 28일.

〈통계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main.screen>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한·중 비교를 통한 베트남
유망 수출품목과 시장진출 전략**

Trade Focus 2018년 49호

발행인 | 김영주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2월 20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